

양돈협회 캠페인

해양배출 감축, 양돈농가 먼저 준비합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뉴스

홍보부

☒ '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 우수 기관 5개소 선정

- 농림부, 평가회 개최... 교육·홍보 실시

농림부는 지난 8월 28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 평가회'를 개최하고, 우수기관으로 당진군 농업기술센터 등 5개소를 선정했다.

시범포 참여 기관·단체 및 관계 공무원, 농·축협 임직원, 축산·경종 농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평가회에서는 2006년도 시범포 운영 어우수기관 5개소를 선정, 시상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단체는 장관상을 비롯 각종 시상이 진행됐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자연순환농업 정책방향, 시범포 관리·운영 요령, 자연순환농업의 경종농가 연계 방안 등의 교육과 함께 시범포별 운영실적 홍보용 판넬 전시 및 우수 시범포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한 가축분뇨 퇴·액비의 우수성과 자연순환농업 홍보도 병행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인식이 점차 향상되고는 있으나 자연순환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퇴·액비 시범포 설치, 연찬회 개최 등 경종농가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퇴·액비 생산

및 유통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분뇨 해양배출 감소 지속

- 7월말 111만톤 전년비 29% 감소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7월 가축분뇨 해양 배출량은 19만5천여톤으로 전월 15만6천여톤에 비해 25% 가량 증가하면서 올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동월 24만2천여톤에 비해 20% 가량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7월말 해양 배출량은 110만9천여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155만4천톤에 견줘 29%(44만5천여톤)가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자원화 정책과 해양배출처리 비용 상승으로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자원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돼지 분뇨 액비 냄새 크게 줄여

- 축산과학원, 분뇨처리 장치 개발

액비의 악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분뇨처리장치가 개발돼 양돈농가의 기대를 받고 있다. 축산과학원은 최근 돼지 액상분뇨를 톱밥 또는 왕겨를 이용, 손쉽게 액비화하는 것은 물론 오염물질을 크게 줄여 액비로

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분뇨 처리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실험 결과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악취농도가 90% 이상 줄었으며 오염물질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액비 사용시 가장 큰 걸림돌이던 악취뿐 만아니라 성분이 불균일해 비료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졌던 문제 역시 해결, 액비 이용을 증대시키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바이오가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원 어렵다'

- 농림부, 3년간 실증화 연구 후 지원여부 결정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적 규제가 갈수록 심화되어 지자체와 연구기관, 축산농가 등을 중심으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및 에너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림부가 바이오가스 생산형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한 정책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농림부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여건에 적합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 최적시스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과 민간기업체 연구소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2천두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투자비 회수기간이 7~8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9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10개소를 설치 운영했는데, 5개소가 폐쇄 및 중단되고 1개소도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운영 실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플랜트의 경우, 에너지는 당초계획 대비 생산량이 저조하고 남은 소화물을 재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

적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동 자원화시설 정책지원에 대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0억원이 투입되는 '바이오가스 생산 공정연계 농가형 가축분뇨 통합자원화 공정시스템 개발 및 실증화' 연구사업 결과와 산업자원부 등에서 설치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 평가 추진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선발하는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시스템에 대해 올해 12월중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5월에 신청된 35개 시스템에 대해 '가축분뇨 자원화 전문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거친 결과 23개 시스템(가축분뇨 자원화 15개, 악취저감 시스템 8개)에 대해 2차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2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9~11월중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시스템을 선정해 가축분뇨처리지원 시책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우수시스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자 선정 시 우수시스템 위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으며,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우수시스템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경쟁 입찰에 참여토록하기로 했다. **양돈**

